

불상의 장엄, 불복장의 의미와 특징

이선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 I. 머리말
- II. 『造像經』의 사상과 佛
 - 1. 『造像經』의 구성
 - 2. 佛과 안립물목
 - 3. 佛과 불복장의식
- III. 佛의 장엄, 불복장
- IV. 맺음말

국문초록

불복장의식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불교의례이며, 그 근간에는 『조상경』이 있었다. 이에 『조상경』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의례적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 불복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상경』은 「대장일람경」, 「제불보살복장단의식」, 「묘길상대교왕경」, 「삼십지단석」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불복장으로 안립되는 물목의 종류와 제작 방법,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의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각각의 물목들은 의식을 통해 대관정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단순한 物은 理와 융합되어 그 가치와 의미가 변화된다.

안립물목은 오불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와 싹, 향, 약의 의미 등 모두 오불로 연결되고 있으며, 관정의식을 통해 佛身을 성취하게 된다. 불신을 성취한 물목을 상 안에 넣어 장엄함으로써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佛’로 완성하고 있다. 이는 정계에 사리를 봉안하던 간다라 지방의 성물 봉안,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형태의 오장육부를 像에 안립하는 중국과 차별된다. 이러한 불복장의식과 『조상경』의 사상은 밀교 경전의 사상과 형식이 불복장에 유입되면서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불복장의식은 오불의 불신을 갖춘 물목으로 상의 내부를 장엄하고 이를 통해 부처님의 實體에 다가서려 종교적 의례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불복장(佛腹藏), 조상경(造像經), 오방(五方), 오불(五佛), 팔엽통(八葉筒), 후령통(喉鈴筒)

I. 머리말

불교는 삼국시대 공인된 이례로 민중 신앙의 발로이자 정치·문화·사회 등 통치 이념의 중요한 척도였다. 대장경 간행, 관정도량, 연등회, 팔관회, 각종 道場, 수륙제 등을 비롯하여 왕이 보살계를 받는 등 개인의 치병,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왕실 주도의 불교의례가 고려시대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불교의례는 억불숭유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국의 사찰에서 의례집의 간행과 더불어 영산회 등 대규모 불교의례가 봉행되었다.

불교의례는 불보살상을 비롯한 불교관련 조각상과 괘불을 포함한 불화를 대상으로도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佛腹藏儀式과 點眼儀式이다. 의식을 통해 조각상과 불화가 장엄되면서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 불복장의식은 조각상 내부에 腹藏孔을 마련하여 그 안에 安立¹⁾되는 物目²⁾과 더불어 이때 행해지는 의식을 통칭한다.³⁾ 특히 사경·전적·다라니·직물·복식·후령통·발원문 등의 물목을 안립하는 불복장의식의 특성상 시대적·문화적 특징을 알려주는 문화의 寶庫로 인식되고 있다.⁴⁾

1) 복장물을 ‘넣는다’라는 의미로 보통 安置, 또는 納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복장의 소의경전인 『조상경』에서 ‘安立’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2) 1824년 유점사관 『조상경』 「諸佛菩薩腹藏壇儀式」조의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에서는 복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物로 지칭하였다. 이에 안립되는 물목을 통칭할 때에는 物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불화의 복장은 물목을 안립한 복장낭을 걸어 두거나 장황 방법에 따라 배접지 내외부에 물목을 부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裝藏, 일본은 納入, 納入物로 언급되는 불복장은 나라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불복장은 심장 역할을 하는 八葉筒과 喉鈴筒을 像에 안립함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하는 독특한 구성과 형식을 지닌다. 이는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중국·일본과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불복장의식을 형성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造像經』이 있다. 따라서 『조상경』의 내재된 사상·형식·의례적 특징은 우리나라 불복장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목과 의식을 중심으로 『조상경』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상과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造像經』의 사상과 佛

1. 『造像經』의 구성

『조상경』은 현재까지 1575년 용천사판 『造像經』과 1697년 능가사판 『觀相儀軌』, 1720년 화장사판 『華嚴造像』, 1746년 김용사판 『造像經』, 1824년 유점사판 『造像經』이 알려져 있다. 表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大藏一覽經」, 「諸佛菩薩腹藏壇儀式」, 「妙吉祥大教王經」, 「三悉地壇釋」條로 구성되었다. 「대장일람경」조는 造像品을 모

4) 우리나라에서 불복장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안립물목의 현황보고, 발원문을 대상으로 역사, 조각승 등에 대한 연구, 경전과 사경, 직물과 복식 등 개별 물목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우리나라 불복장의 형성과 전개, 사상적 특징, 진언 등 『조상경』을 포함한 불복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놓은 것이며,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는 안립물목의 종류와 의미, 조성방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묘길상대교왕경」조는 물목을 안립하는 의식, 「삼실지단석」조는 의식단을 기술하였다.

판본에 따라 「金剛阿闍梨觀想儀軌」, 「佛說佛母般若波羅密多明觀想儀軌」, 「點眼文」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1697년 능가사판에서 「불설불모반야바라밀다대명관상의계」의 내용 중 일부가 추가되고 喉鈴銀合八葉筒蓋之圖, 腹藏喉鈴八葉筒銀合內所入諸物次第抄錄이 함께 서술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점사판에서 확인된다. 유점사판은 물목의 종류와 제작방법, 의식방법, 점안 등 불복장을 포함한 점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편입시키고 있어 불복장의 연구에 기본이 되고 있다. 이에 유점사판 『조상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 「묘길상대교왕경」조와 「삼실지단석」조이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는 의식의 개념과 의미 등을 서술한 복장단의식, 물목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는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오방에 따라 안립되는 물목의 종류와 조성방법을 설명하는 腹藏所入諸色, 그리고 복장을 조성하는 날 단을 건립하면서 誦呪法師, 阿闍梨, 五方法師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식을 서술한 腹藏壇衆儀式으로 구성된 다.⁵⁾ 「묘길상대교왕경」조는 五寶瓶,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黃, 五芥子, 五色彩幡, 五色絲, 五時花, 五菩提樹葉, 五吉祥草, 五傘蓋, 五

5) 용천사판을 비롯한 다른 판본에서 「제불보살복장단의식」은 이과설, 腹藏入物抄錄, 筒內藏次第로 구성되었으며, 복장단중의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杵를 순서에 따라 안립하면서 염송되는 진언과 의식방법을 서술하였다. 「묘길상대교왕경」조는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복장단중회와 같이 송주법사, 아사리, 오방법사에 의해 의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물목을 통해 얻게 되는 大灌頂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삼실지단석」조는 秘密悉地, 入悉地, 出悉地로 구성된 三悉眞言을 중심으로 點筆方, 准提九字, 그리고 五如來種子, 四波羅密菩薩眞言 등 다양한 種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음·아·흠의 의미를 자세히 서술한 唵啊吽理解가 후술되었다.

『조상경』의 간행이 이루어진 동시기의 불복장을 살펴보면 일률적인 형식을 기반으로 물목의 구성과 안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상경』이 우리나라 불복장의 체제를 정형화하여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갖추는데 소의경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려시대 불복장은 조선시대 불복장과 변화와 차이가 확인되지만 안립물목의 구성과 형식에 있어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1575년 용천사판 이전 『조상경』과 유사한 경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전에 의거하여 의식화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조상경』은 여러 경전이 모아 이루어진 경전이다. 「대장일람경」조는 『대장일람경』 중 조상품만을 발췌하였으며, 「묘길상대교왕경」조는 1062년 한역된 이후 바로 고려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이하 『묘길상대교왕경』) 권제1의 관정의식, 「삼실지단석」조는 『三種悉地三部儀軌』에 기초하고 있다.⁶⁾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前提는 명확하지 않으나 복장제물

6) 『삼중실지삼부의궤』는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와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이하 『삼중실지궤』), 그리고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三界秘密陀羅尼』를 말한다.

해석분제이과설과 복장단중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묘길상대교왕경』을 비롯한 밀교 경전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조상경』의 구성과 특징은 물목과 의식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복장의식의 사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佛과 안립물목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는 불복장의 안립물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목의 의미를 함께 서술하였다. 유점사판의 복장소입제색에서 거론된 물목은 五鏡, 오륜종자, 報身呪, 化身呪, 진심종자, 오보병,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 오개자, 오채번, 오색선, 오시화, 오보제수염, 오길상초, 오산개, 오저로 오방에 따라 안립되는 물목을 방위를 기준으로 기록하였다(표1).⁷⁾ 또한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兩面圓鏡, 無孔水晶珠, 오색선, 黃綃幅子, 願文, 舍利 7立, 舍利盒, 후령통, 四方呪, 八葉大紅蓮呪, 天圓, 地方, 오륜종자, 보신주, 화신주, 진심종자, 五方鏡, 五方瓶, 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陀羅尼의 구성과 제작 방법을 후술하였다.⁸⁾ 전술된 오방 안립물목은 오경, 오륜종자, 보신주, 화신주, 진심종자를 제외하고 오보병에 안립되는 물목을 서술한 것이

7) 유점사판 이외의 다른 판본에서는 所入諸色으로 기록되었으며, 보신주, 화신주, 진심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복장소입제색에서는 오방경과 오방병,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에서는 오경, 오보병으로 언급하였으나 오방경-오경, 오방병-오보병은 동일한 물목이다. 본고에서는 오경과 오보병으로 언급하도록 하였다.

다. 실제 불복장에서 오경, 오보병, 오륜종자, 오산개, 오채번, 오색선, 오저를 제외한 그 외의 물목들은 방위 구분없이 오보병 안에서 발견되고 있어 『조상경』에서 방위에 따라 물목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후술된 물목들은 후령통과 황초폭자의 안립순서를 기록한 「喉鈴筒內安立次第」조, 「黃綃幅子內安立次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⁹⁾

〈표 1〉 「諸佛菩薩腹藏壇儀式」조 腹藏所入諸色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앙
五鏡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五輪種子	靑綃 𣎵輪	紅綃 𣎵輪	白綃 𣎵輪	黑綃 𣎵輪	黃綃 𣎵輪
報身呪	𣎵字	𣎵字	𣎵字	𣎵字	𣎵字
化身呪	𣎵字	𣎵字	𣎵字	𣎵字	𣎵字
眞心種子	靑綃輪 𣎵字	紅綃輪 𣎵字	白綃輪 𣎵字	黑綃輪 𣎵字	黃綃輪 𣎵字
五寶瓶	靑色瑪瑙寶瓶	黃色摩尼寶瓶	紅色珊瑚寶瓶	綠色琉璃寶瓶	白色水晶寶瓶
五穀	大麥	稷	稻	菽豆	麻子
五寶	生金	眞珠	生銀	琉璃	琥珀
五藥	人蔘	甘草	桂心	阿梨	附子
五香	靑木香	丁香	藿香	沈香	乳香
五黃	大黃	雄黃	小黃	雌黃	牛黃
五芥子	蒔蘿靑芥	紫芥	白芥	蔓菁芥子	黃芥
五綵幡	靑彩幡	紅彩幡	白彩幡	黑彩幡	黃彩幡
五絲	靑線	紅線	白線	黑線	黃線
五時花	靑時花	紅時花	白時花	黑時花	黃時花
五菩提樹葉	香樹葉	楸樹葉	夜合樹葉	梧桐樹葉	樹聖葉
五吉祥香草	矩舍草	摩訶矩舍草	室利矩舍草	苾芻矩舍草	悉黨矩舍草
五傘蓋	靑蓋	黃蓋	紅蓋	綠蓋	白蓋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黃帛杵

9) 유점사판에서는 후령통과 황초폭자 안에 들어가는 물목의 안립순서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소입제색, 복장입물초록, 통내장차제에서 각각의 물목의 조성방법과 안립순서를 별다른 구분없이 중복하여 서술하였는데, 안립순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에서는 오경, 오보병, 오곡, 오향, 오약, 오길상초, 오공양, 오륜종자, 오산개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였다.¹⁰⁾ 오방에 따라 형태와 색 등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경과 오륜종자이다.

오경은 尊勝儀에 따라 동방-大圓鏡智, 남방-平等性智, 서방-妙觀察智, 북방-成所作智, 중방-方便究竟智의 五智로 설명하였다.¹¹⁾ 오륜종자는 五字-五色-五形-五智-五臟-五部-五佛로 각각의 방위를 배대시키고 있다<표2>.¹²⁾

〈표 2〉「諸佛菩薩腹藏壇儀式」조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의 五輪種子 의미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앙
五字	ㄱ(암)	ㄴ(람)	ㄷ(밤)	ㄹ(함)	ㅇ(감)
五色	靑色	赤色	白色	黑色	黃色
五形	方形	三角形	圓形	半月形	圓形
五部	金剛部	寶生部	蓮華部	羯摩部	佛部
五佛	阿閼佛	寶生佛	無量壽佛	不空成就佛	毘盧遮那佛
五智	大圓鏡智	平等成智	妙觀察智	成所作智	方便究竟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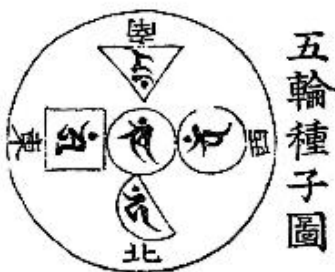
10) 용천사판 이하 김룡사판까지 유점사판의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의 제목을 두지 않고 오경, 오보병, 오곡, 오향, 오약, 五供養의 의미만이 서술되었으며, 오륜종자는 제목없이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통내장차체 다음에 설명되었다. 물목의 의미가 「묘길상대교왕경」조에 일부 편입되어 있어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점사판의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11) 『造像經』「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表五智謂 尊勝儀云 東方大圓鏡智 南方平等成智 西方妙觀察智 北方成所作智 中方方便究竟智 華嚴經中 普賢 入如來藏身三昧 觀五海印 例比同’

12) 『造像經』「諸佛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五輪種子 東方 ㄱ(暗)字 靑色方形 大圓鏡智 從此字出生 安於臍下 金剛部主阿閼佛 南方 ㄴ(嚙)字 赤色三角形 平等成智 日月星辰火光焰 從此字出生 安於胸中 寶生部主寶生佛 西方 ㄷ(鑊)字 白色圓形 妙觀察智 山河萬物 從此字出生 安於口中 蓮華部主無量壽佛 北方 ㄹ(哈)字 黑色半月形 成所作智 禾穀果實繁茂 從此字出生 安於額上 羯摩部主佛空成就佛 中方 ㅇ(坎)字 黃色圓形無定也 方便究竟智 人天長養顏色滋味 從此字莊嚴 安於頂上 如來部主毘盧遮那佛’



〈도 1〉「諸佛菩薩藏壇儀式」조 腹藏所入諸色 중
五輪種子



〈도 2〉五輪種子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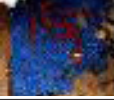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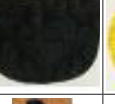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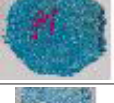














오경은 북장소입제색에서 동방-방경, 남방-삼각경, 서방-원경, 북방-반월경, 중방-원경으로 그 형태를 서술하였다. 오륜종자는 오색의 비단인 五色綃를 사용하여 각 방위마다 해당되는 五輪形으로 제작한다고 설명하였으며〈도1〉, 이를 도해로도 제시하였다〈도2〉.

실제 불복장에서 오경과 오륜종자의 오형과 오색은 『조상경』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오경 중 중방의 원경은 후령통 내부에, 그 외 방위에 해당되는 四鏡은 후령통의 외부에서 확인된다〈표3〉. 오륜종자는 고려시대 불복장에서 오방-오형-오색-오자의 배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통의 내부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대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오색과 오자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1639년 수덕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이 원형, 또는 방형의 직물에 오자만 기록되어 각각의 보병에 안립되기도 하며, 1490년 해인사 범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1724년 삼길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같이 오보병에 직접 기록하기도 한다〈표4〉. 그 외 하나의 직물에 오자를 기록하여 오보병이 아닌 후령통 내외부에서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표 3〉 1639년 수덕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 五方鏡 안립 모습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앙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표 4〉 五輪種子 안립 모습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앙
1302년 아미타여래상				흑색직물 흔적	
13~14세기 안정사 금동여래좌상					-
1490년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39년 수덕사 대웅전 목조아미타불좌상					
1724년 삼길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오경의 오형과 오지는 오륜종자와 동일하다. 즉, 오경의 오형과 오지가 오륜종자의 배대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오부와 오불의 지혜로 귀결된다. 오보병은 대일여래의 다섯가지 지혜의 보배를 표시하는 것,¹³⁾ 오곡은菩提의 싹으로 오지의 싹을 비롯한 十信, 十住 등의 싹을 生長한다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¹⁴⁾ 오경과 오륜종자뿐만 아니라 오경, 오륜종자, 오보병, 오곡의 의미가 모두 오불의 지혜를 가리킨다.

또한 오곡은 地·水·火·風·空의 五代로써 佛種子·法種子·智種子·寶種子·金剛種子를 표시한다. 오향은 佛香·法香·寶香·羯摩香·智香의 오불의 향이며,¹⁵⁾ 오약은 五藏의 병을 不淨觀·慈悲觀·智慧觀·謙心觀·正念觀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佛藥·法藥香·寶藥·羯摩藥·智藥의 오불의 藥으로 서술하였다.¹⁶⁾ 목록

13)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五寶瓶 表大日如來五智寶謂 疏云 普賢是無盡願行寶瓶 慈氏は無盡饒益衆生寶瓶 除蓋藏是無盡正知見寶瓶 除惡趣是無盡大悲方便寶瓶 大日如來是無盡性清淨寶瓶 寶瓶者 萬法含容之義以喻如來 又名普賢瓶 以此五寶瓶 盛滿清淨之水 灌注一切衆生本清淨心中 故則得法王之位’

14)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五穀 此長養終生菩提芽義謂 五智之芽 又 信往行向地五位之芽 生長義 大日經記云 五藥理五種過患以五穀種 淨心田中 生長五智菩提善芽 又 此五穀地水火風空所成 表五佛種子 佛種子 法種子 智種子 寶種子 金剛種子 凡夫種子 於六道四生 循環性來五佛種子’

15)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五香 表五佛香 佛香 法香 寶香 羯摩香 智香 瑜加教云 以世間香 喻出世間五分法身之香 今以戒定慧解脫知見香 遍滿法身與法界之義’

16)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楡岾寺板.

‘五藥 能理五種病患義 喻謂五藥理五藏之病 貪病多者以不淨觀教治 瞋病多者 以慈悲觀教治 癡病多者以智慧觀教治 慢病多者 以謙心觀教治 疑病多者以正念觀教治 加特五藥 表五佛藥 佛藥 法藥 寶藥 羯摩藥 智藥 以此爲五藥以沐浴 凡夫無量劫來一切障染 皆得清淨 又獲五種吉祥 佛吉祥 法吉祥 寶吉祥 羯摩吉祥 智吉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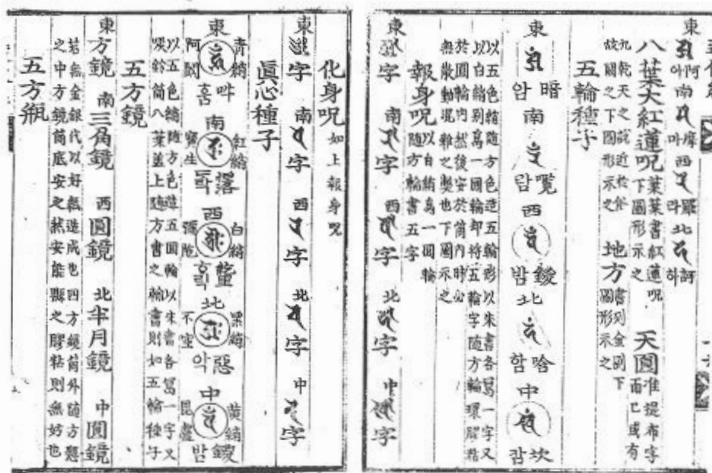
만 있을 뿐이다<도3>. 유점사관 『조상경』에서만 등장하는 보신주와 화신주가 삼실진언에서 유래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삼실지단석」조의 출실지, 입실지, 비밀실지의 삼실진언은 의식단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것¹⁹⁾으로 출실지는 化身, 입실지는 報身, 비밀실지는 法身을 이름으로써 진언에 내포된 법을 통해 佛이 탄생된다.²⁰⁾ 비록 「삼실지단석」조의 입실지와 출실지에서 오자의 방위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탄생되는 佛을 통해 입실지는 보신주로, 출실지는 화신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경, 오륜종자, 오보병, 오곡, 오향, 오약, 삼실진언은 모두 오불, 즉 佛로 귀결되고 있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에서 『安像經』을 인용하여 造像을 마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慶讚하지 않으면

18) 善無畏 譯,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陀羅尼法』(T0905, 18:909c07-910c16.)
 ‘佛言 𑖀 阿字金剛部主肝 阿字即是大日如來理法身 本性清淨極理畢竟不可得空 金剛地輪種子 金剛部曼荼羅也 若約名色者 地是色法 五陰中識陰心持地 其種子不淨 凡五臟者是色法也…魂神氣爲東及木 木是色空也 木主春其色青… 𑖀 鑠字蓮花部主肺 鑠字是縛字第十一轉 尾字是第三轉也 轉釋阿字義也 即大日如來智海水大轉輪種子 神通自在之法名智法身 亦名報身 是即蓮花部曼荼羅也…白氣者字也 𑖀 藍字寶部主心 藍字是大日如來心地種火大種子 三世諸佛室宅 焚燒一切衆生無始無明塵垢妄執出生菩提心牙種 轉釋阿字義也 即是應化身如來 實是智法身火生曼荼羅也 心主神其形如鳥 爲南方火 火主夏其色赤…赤氣者字也 𑖀 哈字羯磨部主腎 𑖀 𑖀字即賀字轉也 即是大日如來常住壽量風大種子 三解脫門三際不可得義 法身大力曼荼羅也…黑氣者字也 𑖀 欠字虛空部主脾 𑖀 𑖀字則大日如來無見頂相五佛所證大空智處 寂滅眞如理智 十方三世諸佛所證菩提道場殊勝曼荼羅也 脾主意 爲中央及土 土主季夏其色黃 黃色從地生…黃氣者字也… 𑖀 阿字是東方阿閼如來 𑖀 鑠字西方阿彌陀如來 𑖀 藍字是南方寶生如來 𑖀 哈字北方不空成就如來 𑖀 欠字是上方毘盧遮那大日如來也…此本五部梵本四十萬言出 毘盧遮那經金剛頂經採集要妙最上福田 唯此五字眞言誦者… 𑖀 阿金剛地部 一 阿字作地觀金剛座觀 𑖀 鑠金剛水部 二 鑠字作水觀蓮花觀 𑖀 藍金剛火部 三 藍字作日觀也 𑖀 哈金剛風部 四 哈字作月觀 𑖀 欠金剛空部 五 欠字作空觀 𑖀 如來體性無生觀’

19) 대경스님,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p. 59.

20) 이선용, 「불화에 기록된 법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美術史學研究』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p. 154.



〈도 3〉「諸佛菩薩腹藏壇儀式」조 腹藏所入諸色の 眞心種子 · 報身呪 · 化身呪

불길함을 얻게 되고 복과 이익이 없고 지혜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조성된 불상을 觀想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여기서 원만한 相을 갖추어야 한다고 일반적인 相好로써 설명하고 있으나 아사리에 의한 관상 의식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장의식을 통해 像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변화된 佛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물목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지 않았지만 오불에 내재된 의미를 담고 있는 물목을 안립함으로써 像에서 佛로 장엄되는 불복장의식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1824년 楡岾寺板.

‘安像經云 若所造佛像 儀相闕等 不可安像慶讚若相不圓 令彼衆生現世未來得大苦怖 是故一心求造圓滿 云云 若造像畢已經久時 而不得安像慶讚 於其後時反獲不吉 設得有人供養禮拜 終無福利 如無智人 人人相不具 令彼世間而輕慢 是故 造像須具相圓滿 令諸有情得大福利 所造佛像 面東安置 以黃衣蓋覆 阿闍梨作觀想想佛如一火聚 誦火聚眞言七遍 擲白介子若干 火聚眞言…誦此眞言已 復想如來眞實身’

3. 佛과 불복장의식

『조상경』에 의거하여 조성된 안립물목을 송주법사가 진언을 염송하고 아사리가 灌頂을 하여 오방법사에게 넘겨주면 각 방위에 해당하는 물목을 봉안하는 방식으로 의식이 진행된다. 모든 물목은 관정을 통해 대관정을 받은 후 후령통과 황초폭자에 안립되며, 이를 다시 像에 봉안하게 된다. 이런 물목의 준비와 의식 등의 일련의 과정이 바로 불복장의식이다.

불복장의식 중 송주법사와 아사리, 오방법사에 이루어지는 의식을 기술한 것이 「묘길상대교왕경」조이다.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복장단중회의는 의식을 집전하는 법사를 선정하고 길상초, 八方草, 三位으로 단을 구성하며, 아사리는 모든 물목과 제자들에게 향수를 뿌려 淨方을 조성하는 등 안립물목의 관정이 이루어지기 전 의식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묘길상대교왕경」조와 연결된다.²²⁾

「묘길상대교왕경」조에서 각각의 물목을 가지하는데, 그 방법을 오보병 중 동방 청색 瑪瑙寶瓶에서 기술하였다.²³⁾ 송주법사가 108편씩

22)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壇衆會議, 1824년 榆岾寺板.

‘腹藏造成之日 先擇知識沙門五員 爲五方法師 又 令善誦腹藏眞言沙門二三員 爲誦呪法師 嚴淨道場肅靜壇法 阿闍梨 以吉祥草 分布十一位於壇中 先安八方草 稍向東 次安三位草於八方草之間稍向身皆表法也 阿闍梨 以吉祥草 洒香水於諸弟子之身令入道場 及洒於壇中諸物 表結其淨方及滅障染也 若佛事不廣 則亦可以知識一人 總任五方法師之事 又以誦呪一人亦能誦諸眞言 成就佛事矣 見其佛事廣略而設也 所謂佛法隨時 此之謂也’

23) 『造像經』「妙吉祥大教王經」條, 1824년 榆岾寺板.

‘東方青色瑪瑙寶瓶 表金剛波羅密菩薩 以菩薩眞言 加持一百八遍…加持五寶瓶 授大灌頂 獲金剛不壞堅固之身 誦呪法師 誦金剛波羅密菩薩眞言一百八遍後阿闍梨 以此五寶瓶 共盛一器 持吉祥草 洒水灌頂 呼瓶名云 東方青色瑪瑙寶瓶 東方法師 應答受瓶 立於槃上東方位 阿闍梨 又如是次次呼名云 南方某瓶西方某瓶 北方某瓶 中方某瓶 五方法師 亦如上次次應答受瓶 立於槃上本位 五瓶如法安立 後其下諸物呼名應答 安布皆倣此’

해당되는 진언을 염송하면 아사리가 길상초로 물을 뿌려 물목을 관정을 하고, 오방법사 중 해당되는 방위의 법사가 아사리로부터 물목을 받아 그 방위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모든 물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 물목 중 오보병은 오방, 오개자는 팔방으로 구

〈표 5〉「妙吉祥大教王經」조에 기록된 안림물목과 진언

안림물목		진언	大灌頂
五寶瓶	東方瑪瑙寶瓶	金剛波羅密菩薩眞言	獲金剛不壞堅固之身
	南方摩尼寶瓶	寶生波羅密菩薩眞言	獲諸珍寶圓滿
	西方珊瑚寶瓶	蓮華波羅密菩薩眞言	獲自受容智之身
	北方琉璃寶瓶	羯摩波羅密菩薩眞言	獲五如來堅固之身
	中方水精寶瓶	根本波羅密菩薩眞言	獲堅固之身
五穀		阿閼佛眞言 / 金剛波羅密菩薩眞言	常住不減儀
五寶		寶生佛眞言 / 寶生波羅密菩薩眞言	獲金剛之身
五藥		無量壽佛眞言 / 蓮華波羅密菩薩眞言	獲法王之身
五香		不空成就佛眞言 / 羯摩波羅密菩薩眞言	獲如來王分法身香 所辦事業 皆得成就
五黃		毘盧遮那佛眞言 / 根本波羅密菩薩眞言	獲清淨之身
五芥子	東方	焰曼怛迦大明王阿閼化身眞言	獲於五力
	南方	鉢曇泥也怛迦大明王毘盧化身眞言	
	西方	鉢納摩怛迦大明王寶生化身眞言	
	北方	尾屹曩怛迦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東南方	陀枳羅惹大明王不空化身眞言	
	西南方	賴攏能擎大明王阿閼化身眞言	
	西北方	摩訶摩羅大明王阿閼化身眞言	
	東北方	阿左攏曩他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下方	縛毘播多羅大明王阿彌陀化身眞言	
	上方	塢瑟灑作訖羅縛里帝大明王阿閼化身眞言	
五彩色幡		金剛手菩薩眞言	獲名稱遠聞 一切衆生見助隨喜 所有煩惱自然消滅
五色絲		中方本尊隨求眞言	-
五時花		虛空藏菩薩眞言	-
五菩提樹葉		地藏菩薩眞言	-
五吉祥草		吉祥草眞言	-
五傘蓋		白傘蓋眞言	-
五杵(金剛羯摩杵)		本尊眞言 / 波羅密菩薩眞言	-

분하여 구체적으로 방위에 따라 염송되는 진언을 각각 언급하였다. 다른 물목들은 아사리에 의해 가지되고 오방법사에 의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지만 송주법사에 의해 염송되는 진언은 하나로 규정되었으며, 의식에 의해 가지되는 대관정도 동일하다<표5>.

오채색번과 오산개, 그리고 금강갈마저의 형태로 만들어 안립하는 오저는 17세기 이후 불복장에서 오보병에 안립되는 주요한 물목 중 하나였다<도4>. 이에 반해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은 고려시대부터 오보병을 구성하는 주요한 물목이었으며<도5>, 안립되는 물목의 종류를 기록한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의 彌陀腹藏入物色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6>.

오보병과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을 가지하는 의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염송되는 진언이다.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의 진언은 「묘길상 대교왕경」조에서 여래진언과 보살진언 108편 가지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여래진언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반면, 보살진언은 이름만 간략하게 기록하였는데, 유점사판에서는 ‘菩薩眞言如前’이라 부연하였다. 이는 오보병의 진언인 波羅密菩薩眞言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목들의 진언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보병의 진언



<도 4> 1639년 수덕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서방 번 · 산개 · 금강저-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도 5〉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오보병 중
남방 보병의 안립물목-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도 6〉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彌陀腹藏入物色記-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순서에 따라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의 진언이 염송되도록 하고 있다. 즉, 오부와 오불을 상징하는 진언을 통해 물목이 가지되는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오방-오부-오불로 완성되고 있다〈표6〉.

〈표 6〉 물목의 진언을 통해 본 五部와 五佛

방위	안립물목				五部	五佛
동방	오보병	金剛波羅密菩薩眞言	오곡	阿闍佛眞言 / 金剛波羅密菩薩眞言	금강부	아촉불
남방		寶生波羅密菩薩眞言	오보	寶生佛眞言 / 寶生波羅密菩薩眞言	보생부	보생불
서방		蓮華波羅密菩薩眞言	오약	無量壽佛眞言 / 蓮華波羅密菩薩眞言	연화부	무량수불
북방		羯摩波羅密菩薩眞言	오향	不空成就佛眞言 / 羯摩波羅密菩薩眞言	갈마부	불공성취불
중방		根本波羅密菩薩眞言	오황	毘盧遮那佛眞言 / 根本波羅密菩薩眞言	불부	비로자나불

『묘길상대교왕경』권제1에서도 다섯가지의 보병에 해당되는 바라 밀진언과 印契까지 「묘길상대교왕경」조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비록 오보는 四寶末, 오약은 五河水, 오향은 五香末, 오개자는 五種子, 五黃은 五藏物, 오색채번은 五色彩, 오시화는 五時華, 오색사는 五色線으로 언급하고 있어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묘길상대교왕경』의 내용이 「묘길상대교왕경」조로 유입되면서 진언과 물목이 간략하게 정리되고 있다.²⁴⁾ 고려시대부터 중요하게 안립되던 오보병과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은 오부와 오불을 상징하는 물목으로써 조선시대 『조상경』을 통해 그 의미와 상징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에서 오불의 지혜와 종자, 향, 약의 의미 담고 있는 물목은 의식을 통해 佛의 身을 성취하게 된다. 「묘길상대교왕경」조에서도 오색채번은 오불의 身을 표시하며,²⁶⁾ 五色絲는 총명한 지혜,²⁷⁾ 오시화는 불신을 표시하는 꽃으로 설명하였다.²⁸⁾ 물목

24) 『묘길상대교왕경』권제1은 물목에 해당되는 진언과 대관정뿐만 아니라 의미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

慈賢 譯, 『妙吉祥平等祕密最上觀門大教王經』(T1192, 20:0906c15-0910c13.)

25) 이선용,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 『美術史學研究』289, 한국미술사학회, 2016, p. 98.

26) 『造像經』 「妙吉祥大教王經」條, 1824년 榆岾寺板.

‘五色綵幡 東靑綵幡 南紅綵幡 西白綵幡 北黑綵幡 中黃綵幡 此五色綵幡 表五佛身 阿闍梨 及以五綵幡 共盛一器 洒水灌頂 誦呪法師 以金剛手菩薩眞言 加持一百八遍…既加持已 阿闍梨 次次呼五幡名 五方法師 亦次次應答受幡 以此五幡 安五瓶中 授大灌頂 獲名稱遠聞 一切衆生見助隨喜 所有煩惱自然消滅’

27) 『造像經』 「妙吉祥大教王經」條, 1824년 榆岾寺板.

‘五色絲 東靑色線 南紅色線 西白色線 北黑色線 中黃色線 加持戒壇 用五色絲 及以繫瓶口 阿闍梨 以此五色線 共於一處 洒水灌頂 誦呪法師 以中方本尊隨求真言 加持一百八遍…既加持已 阿闍梨 次次呼五色絲名 五方法師 亦次第應答 各受其絲 繫其瓶口 線表聰慧及表結界 一切天魔無能得入’

들은 대관정을 통해 여래, 금강, 오분법신 등의 身을 받게 된다. 단순한 하나의 物에 지나지 않았던 물목이 의식을 통해 대관정을 받게 되고 이로써 佛身을 갖추게 된다.

중국에서는 실제 唐代부터 상 안에 인체의 五臟六腑 형태를 만들어 안립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酉陽雜俎』에 기록되어 있으며,²⁹⁾ 宋代에 제작된 교토 세이료지(清凉寺) 목조석가여래입상에서 복장으로 안립되었다(도7). 이는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인체의 모방을 통해 상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복장제물해석 분제이과설에서 물, 즉 事의 이치인 理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³⁰⁾ 우리나라 불복장에서는 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을 통해 대관정을 받아 안립의 근본을 마련하였다. 이 물목을 후령통과 황초폭자로 싸서 상에 봉안함으로써 대관정을 통해 얻게 된 ‘佛身’을 넘어 形과 意를 모두 지닌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佛’로 완성되는 것이다.

28) 『造像經』「妙吉祥大教王經」條, 1824년 榆岾寺板.

‘五時花 東青時花 南紅時花 西白時花 北黑時花 中黃時花 加持五時花 此土亦無以方妙好時花代之 表五佛身花 表莊嚴 阿闍梨 以五時花 共盛一器 洒水灌頂 誦呪法師 念虛空藏菩薩真言 加持一百八遍…既加持已 阿闍梨 次呼五時花名 五方法師 亦次第應答 受其花安五瓶內’

29) 段成式 撰, 『酉陽雜俎』卷之六「藝絕」條

‘成道寶相寺偏院小殿中有菩提像 其塵下集 如新塑者 相傳此像初造時 匠人依明堂先具五藏 次四肢百節 將百餘年 纖塵不凝焉’

30) 『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1824년 榆岾寺板.

‘大物者事也 易曰通變之謂事 所以爲通變者理也 事之行處 理固存也 故 事得理融 理隨事變 唯除靈知絕待之心 法身向上之理外 天下豈有棄事獨存之理 沒理自成之事也 凡所以像設之法太近於事 然更那裏自有理 徧於事門 事徧於理門也 所以先賢觀此腹藏之物 恐或後人着事迷理 故先以約理解釋 後以舉事分齊 明理事無礙之道也 如下文 自腹藏所入諸色 以下至終末五傘蓋金剛杵 總爲舉事分齊也 上文 自腹藏壇儀式 至腹藏所入諸色以上 即爲約理解釋也’



〈도 7〉 986년 세이간지 목조석가여래입상 · 오장육부 - 『日本の美術』 513, p. 1 · 43,
『日本の美術』 7, p. 1

Ⅲ. 佛의 장엄, 불복장

고려시대 불복장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異見이 있는 부분인 있지만 조선시대 불복장은 후령통을 중심으로 한 구성을 보인다. 각각의 보병 안에 여러 물목을 안립하고 이를 오색사로 감아 하나의 병 형태로 만든 후 다시 오방을 합쳐 오색사로 마무리하면 오보병이 된다. 이 오보병을 후령통 안에 넣고 팔엽개, 또는 원경으로 덮고 뚜껑을 덮는다. 후령통의 외부에는 사방주를 기록하고 그 위에 방위에 해당되는 사경을 오색사로 고정한다. 이를 황초폭자로 싸서 마지막 封을 하면 후령통의 안립이 완료된다(표7)³¹⁾. 이런 후령통의 형태가 우리나라 불복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다만 고려 시대에는 팔엽통, 또는 盒, 筒이 후령통을 대신하기도 하며, 甁, 산개,

〈표 7〉 후령통 안립과정

		
방형 보병 위에 물목을 올려놓고 모서리를 접는다	각 방위의 보병을 오색실로 감는다	보병을 오색실로 감아 오보병으로 만든다
		
후령통에 오보병을 안립하고 팔엽개로 덮는다	후령통 외부에 사방주를 기록하고 오색실로 사경을 고정한다	황초꼭자로 후령통을 싸서 봉한다

금강저 형태의 물목이 오보병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 불복장은 시대에 따라 불복장으로 안립되는 물목의 구성과 형식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묘길상대교왕경」조에서는 오곡, 오보, 오약, 오향, 오황, 오개자, 오색채번, 오시화, 오보리수엽, 오길상초, 오산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금강갈마저를 안립하여 병의 입구를 막고 병의 입구에는 오색사를 매다는 것으로 오보병 안립과정을 서술하였다. 오보병은 오색사로 말아감은 보병을 합쳐 다시 오색사로 감아 놓은 형태이며, 이 오색사가 후령통의 뚜껑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묘길상대교왕경」조

31) 〈표7〉은 1639년 수덕사 목조삼세불상 중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후령통의 조사 과정을 역순으로 하여 처음 불상 안에 봉안될 당시의 순서로 재구성한 것이다.

에서 오색사가 오색채번 뒤에 서술되어 있으나 ‘병의 입구에 매단다’라는 것은 모든 물목을 안립한 보병의 외부를 감고 있는 형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오보병의 안립이 완료되면 후령통에 넣어서 황초폭자에 싸여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기술한 것이 「후령통내



〈도 8〉 13~14세기 안정사 금동여래좌상
〈팔엽통〉內 안립-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안립차제」조와 「황초폭자내안립차제」조이다. 「후령통내안립차제」조에서는 후령통의 내외부의 안립순서를 언급하였는데, 후령통 내에는 오륜종자-진심종자-보신주-화신주-준제주-양면원경-오보병-사리 7립이 든 사리합-무공심주-양면원경-오색사를 안립하고 뚜껑을 덮는다. 이때 오색사는 뚜껑에 있는 관형태의 喉穴을 통해 빠져나오게 된다. 통 아래에는 중방원경-지방-팔엽연-천원을 놓고 황초폭자로 싸게 된다.³²⁾ 「황초폭자내안립차제」조에서는 원문-보협주-천원-지방-후령통의 순서로 놓고 황초폭자로 싸며, 오색사로 세로와 가로로 돌려 싸고 준제주와 법인주를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싼 다음 南面에 증명법사를 기록하고 봉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³³⁾

32) 『造像經』, 「喉鈴筒內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板.

‘先安五輪種子 次安眞心種子 次安報身呪 次安化身呪 次安准提呪 次安兩面圓鏡 次安五寶瓶 次安舍利盒中有舍利七粒 次安無孔心珠 次以兩面圓鏡覆五瓶口 以其繫瓶口五色線合之 拔出於筒蓋喉鈴穴然後 筒蓋閉之 筒底安中方圓鏡 次以地方抱裹於筒 詳審方位 次以八葉仰面天圓下覆 而以五色線貫穿蓮華天圓之上 以天圓抱裹地方之外 今天抱地外 然後以黃絹幅子畢封也’



〈도 9〉 1490년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후령통〉內 안립-해인사 성보박물관 제공

후령통 내부에서 오륜종자, 뚜껑 안쪽에 진심종자를 안립하는 것은 고려시대 합 안에서 주로 확인되며〈도8〉, 무공심주와 사리합, 양면원경 등은 1490년 해인사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에서 확인되기도 한다〈도9〉. 황초폭자, 또는 이중으로 된 幅子 안에서 원문〈도10〉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별견되는 사례도 다수를 차지한다〈도11〉. 「후령통내안립차제」조에서 거론되지 않지만 사방주와 오경은 복장소입제색에서 후령통 내외부로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³⁴⁾ 실제 조선시대 후령통의 외부에서 방위를 알려주는 주된 물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불복장은 『조상경』을 근거로 물목의 조

33) 『造像經』, 「黃綃幅子安立次第」條, 1824년 楡岾寺板.

‘黃綃幅子內先安願文 次安寶篋呪 次安天圓地方所裏喉鈴筒 以黃綃幅子包裹 並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後 因以五色線 羊回豎裹半回橫裹 線盡然後 以准提呪豎封 以法印呪橫封 於南面書證明 稱臣謹封 後 奉安於壇上 誦呪法師 念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

34) 『造像經』, 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所入諸色, 1824년 楡岾寺板.

‘五方鏡 東方鏡 南三角鏡 西圓鏡 北半月鏡 中圓鏡 若無金銀 代以好紙造成也 四方鏡外隨方懸之 中方鏡 筒底安之 然安能懸之 膠粘則無妨也’



〈도 10〉 조선 후기 영원사 목불좌상 후령통 · 발원문-『월정사 성보박물관 도록』, p. 84.



〈도 11〉 1502년 천성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팔엽통 · 발원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공

성과 안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정한 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표7〉과 같이 다수의 물목을 오보병에 안립하여 합, 후령통에 넣어 황초폭자로 싸는 형태를 유지한다.

불복장은 고려시대 정착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를 상회하는 불복장이 현존하지 않아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여러 물목의 형식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묘길상대교왕』의 유입 시기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³⁵⁾

우리나라의 가장 이른 불복장으로 연구되기도 한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서 永泰二年銘蠟石製壺가 발견되었다. 영태이년명납석제호의 표면에 ‘無垢淨光陀羅尼’를 봉안하였다는 기록

35)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261, 2009, pp. 77-104; 태경스님, 앞의 책, 운주사, 2006, p. 48; 이승혜, 「高麗時代 佛腹藏의 形成과 意味」, 『美術史學研究』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71-100;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31-58.



〈도 12〉 바미안 석불의 『연기경』 편과 經筒·니옥-『ガンダーラ美術とバミヤン遺跡殿』, p. 28.

을 통해 탑과 마찬가지로 범사리의 봉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⁶⁾ 바미안 석불에서는 조탑경 중 하나인 『연기경』 편과 함께 3가지 색의 직물 안에서 인조사리의 개념으로 봉안된 니옥 3개가 발견되었다(도12)³⁷⁾. 또한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에서 ‘高麗國 摠持寺住 眞念廣濟大師 釋弘哲敬造 寶篋印經板 印施普安佛塔中供養 時統和二十五年丁未歲記’이라는 간기가 있는 1007년 摠持寺에서 간행된 『一切如來心秘密

36)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영태이년명납석제호가 불신이 아닌 대좌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과연 불복장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태이년명납석제호에 대해서는, 박경원·정원경, 「永泰二年銘蠟石製壺」, 『연보』6, 부산시립박물관, 1983, pp. 45-62; 남풍현,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의 史讀文 考察」, 『新羅文化』第5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8, pp. 20-23.

「永泰二年銘蠟石製壺」,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2009.

‘(表面) 永泰二年丙吾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 郎願爲石毘盧遮那佛 成內無后淨光陀羅尼并 石南巖觀音巖中 在內如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那 若見內人那向尔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選類那吹尔選風 選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尔自毘盧 遮那是術覺去世爲尔誓 內之 (底面) 內物是在之 此者恩術恒性爲 二介反藥者 還病 爲逐’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하 『보협인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실제 보협인다라니는 고려시대 이례로 조선시대 복장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연기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경』)-『보협인경』으로 이어지는 조탑경이 불상의 복장과 관련되고 있다.³⁸⁾ 『조상경』 「대장일람경」조에서 조상품을 두고 있지만 불상의 조성·수리, 공양, 마음 자세, 浴像 등과 함께 조탑과 공덕에 관한 내용이다.³⁹⁾ 신사리와 법사리를 불탑을 비롯하여 불상 안에 봉안하였다는 것은 『浴佛功德經』, 『佛說浴像功德經』, 『南海寄歸內法傳』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탑에 봉안된 사리기에서는 無垢淨壇과 壇師를 기록⁴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황동 삼층석탑에서는 금·은 고배가 각각 2점씩 발견되고 있어 壇의 사방에 놓고 의식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¹⁾ 「묘길상대교왕경」조가 밀교 관정의례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37) 前田耕作, 「パロミヤン佛教遺跡の昔と今」, 『ガンダラ美術とパロミヤン遺跡殿』, 靜岡縣立美術館, 2008, p. 28.

바미안 석불의 인조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성주사지 삼천불전지 일부 소조불의 불신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국대학교박물관 편, 「聖住寺三千佛殿址第一次發掘-聖住寺址 第2次調査」, 『佛教美術』2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4; 동국대학교박물관 편, 『소장품도록』, 동국대학교박물관, 2006; 김순아, 「성주사 삼천불전지 출토 소조상과 납입품」, 『불교미술』제27호,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5, pp. 83-104. 참조.

38) 시대별 조탑과 공덕에 대해서는, 문상린, 「納塔經典의 시대적 變遷考」, 『佛教學報』6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 pp. 337-368; 홍대환, 「신라와 고려시대 조탑(造塔) 경전의 역할과 기능」, 『史學志』제42집, 단국대학교사학회, 2011, pp. 101-149. 등 참조.

39) 1824년 유점사판에서 15則, 다른 판본에서는 모두 14칙으로 명기하였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16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40) 「鶯棲寺石塔舍利函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2009.

‘釋彥傳 母親諱明端 考伊滄金亮 宗公之季女 親自發弘誓 專起佛塔已感淨土之業 兼利穢國之生孝順此志 建立茲塔在 佛舍利十粒 作无垢淨一壇增師皇龍寺賢匠 大唐咸通八年建(밀면) 石匠神努’

탑의 건립과 사리기의 봉안에 있어서도 밀교의식에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밀교의 유입은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義林과 不可思議, 玄超, 惠果 등의 당 유학승들에 의해 『무구정경』과 『佛頂尊勝陀羅尼經』, 『不空絹索陀羅尼經』 등의 다수의 밀교 경전과 사상이 유입되었다. 8~9세기 이미 신라사회에서 밀교는 보편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민중신앙으로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⁴²⁾

유학승에 의해 유입된 밀교 중 태장과 금강계에 기초한 오방사상에 있어 오방에 안포되는 오불을 통한 오지의 표출은 중기 밀교의 중요한 사상이었으며, 후기 밀교까지 연결된다. 태장과 금강계의 양계만다라의 구조를 보이는 『삼중실지삼부의례』와 『묘길상대교왕경』 등의 당대 후기 중국 밀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³⁾

『조상경』에서 오방과 오불의 배대관계는 태장과 금강계와 관련된 다(표8). 『조상경』의 오부와 오불이 비록 금강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에서는 壇과 曼陀羅, 오색 등의 개념을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하 『대일경』)과 『大毘盧遮那成佛經疏』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四方四隅와 第二院, 四方·四角·四柱·五色線·五根·五色綃 등을 外緣로 보고 이를 곧 三十七助菩提法을

41) 구황동 삼층석탑은 석탑의 해체수리 당시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마을 주민들의 傳言에 따라 황복사지 삼층석탑으로 명명되었다. 구황동 삼층석탑과 사리기, 그리고 金銅舍利函記의 명문, 『무구정경』에 관해서는, 한정호,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美術史論壇』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pp. 61-88, 참조.

42) 徐閔吉, 『韓國密敎思想史研究』, 불광출판부, 1994, p. 80.

43) 『삼중실지삼부의례』 중 『삼중실지례』의 사상에 관해서는, 김영덕, 「三種悉地法에 관한 연구」, 『密敎學報』10,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9, pp. 33-54.

〈표 8〉 태장·금강계 五佛과 『조상경』의 五佛 비교

구분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중방
태장 五佛	寶幢如來	開敷華王如來	無量壽如來	鼓音如來	毘盧遮那佛
금강계 五佛/五部	阿閼佛 /金剛部	寶生佛 /寶生部	阿彌陀佛 /蓮華部	不空成就佛 /羯摩部	毘盧遮那佛 /佛部
『조상경』 五佛/五部	阿閼佛 /金剛部	寶生佛 /寶生部	無量壽佛 /蓮華部	不空成就佛 /羯摩部	毘盧遮那佛 /佛部

표시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비로자나불에서 탄생된 팔엽으로 보는 『대일경』의 태장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37 존을 만다라로 표현한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이하 『금강정경』)의 금강계의 양계만다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⁴⁾

실제 고려시대 복장에서는 후령통 대신 팔엽통이 안립되었으며〈도 13, 14〉, 유점사관을 제외한 다른 판본에서 ‘銀合, 喉鈴八葉筒, 箇, 喉鈴八葉筒銀合, 銀合筒, 八葉筒, 喉鈴銀合八葉筒’ 등의 용어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미타복장입물색기와 1322년 천수관음의 學案(〈도 15〉, 『東文選』,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를 통해서도 팔엽통

44) 『造像經』 「諸佛菩薩藏壇儀式」條, 1824년 楡岾寺板.

‘壇者 都會義也 向何 又 以明答 陀羅尼集經云 壇者 都會義 又具衆德矣 具緣品上 同此說 曼陀羅 一味法界 謂大日經云 曼陀羅者 發生諸佛極無比義 諸佛依此一味法界家生 一味法界者 無住實相也 毘盧遮那本地法身也 又曼陀羅 車輪周備之義 無過上味醍醐之義 醍醐者 佛在常住不變之義 又 內胎之君 四方四隅 如諸侯令第二院 又 如朝廷百僚 四方四角四柱 五色練五根五色綃等諸緣 表三十七助菩提法也’

45) 『東文選』 第68卷,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條.

‘…國淸堂上三尊奇 文殊普賢侍尼 誰集衆緣能辦此 上將盧公之所爲 腹藏諸物欲安置 一物最難求舍利 信士天甫謂盧公 善根眞僞斯可試 君等檀家誠若至 乞得舍利胡不易 盧公卽進白衣前 鋪帛焚香陳願志 退禮三拜舉頭望 已有一粒生帛上 諸人顙喜爭就看 須臾出現無數量 五色爛斑光耿耿 體亦大小非一樣 收拾分盛八葉筒 納安主伴三腹中 聞者皆生希有想 彈指讚歎終莫窮 須知此像卽眞相 不畏劫火毗嵐風 凡捨一塵助營者 安得不成三界雄…’



〈도 13〉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팔엽통-수덕사 근역성보관 제공



〈도 14〉 13~14세기 안정사 금동여래좌상
팔엽통-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15〉 1322년 천수관음상 學案-『1302年 阿彌陀佛腹藏物の 調査研究』, p. 333.

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팔엽은 『宗鏡錄』卷第28 畫像에서 인간의
심장으로 비유되었으며,⁴⁶⁾ 인도의 의학에서 팔엽의 연꽃을 인간의 심
장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⁴⁷⁾

46) 延壽集, 『宗鏡錄』(T2016, 48:577c11-20.)

‘問 何故蓮唯八葉 答謂三乘果德體周照 而用未周故云八葉耳 若化 周應道中德滿十方 乃
名十葉 今約少分四攝四無量 故名取八也 一葉表一實 五葉表五乘 又心內辦正八 和合爲蓮
華體 故名八葉 又一切凡夫心處雖未能自了 其內心亦自然而有八瓣 合成蓮華形 今但視照
此心令其開敷 即是三昧實故 若視此心八葉之華 即得與理相應 此八葉者四方即是表四攝
四隅即表如來四智 此華本來無生 即是菩提心’

47) 박준석, 「밀교의 아자관에 대한 연구」, 『密敎學報』第十四輯,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13, p. 95.

간다라 지역의 불상에서 頂髻의 구멍에 신사리를 봉안하기도 하였지만⁴⁸⁾ 우리나라는 탑과 동일하게 밀교의식에 기반을 둔 사리신앙이 초기 불복장에 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팔엽의 상징성을 팔엽통으로 구체화하면서 사리와 함께 오불사상을 오보병과 오경, 오륜종자, 진심종자, 오색사 등에 투영하여 안립하는 의식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인다. 팔엽통은 이후 팔엽개의 형태로 후령통에 안립되면서 후령통이 심장 역할을 하는 물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불복장의식은 佛의 내부를 장엄함으로써 조형물이 아닌 생명력을 지닌 부처님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의 상징적 의미였다.

IV. 맺음말

불복장의식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불교의례로 그 근간에는 『조상경』이 있었다. 이에 『조상경』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의례적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 불복장의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상경』은 『대장일람경』, 『묘길상대교왕경』을 비롯한 『삼중실지삼부의례』 등의 밀교 경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전이며, 「대장일람경」, 「제불보살복장단의식」, 「묘길상대교왕경」, 「삼실지단석」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불복장으로 안립되는 물목의 종류와 제작 방법, 그 의미뿐만 아니라 안립의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묘길상대교

48) 李柱亨,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中央 아시아 研究』第9號, 중앙아시아학회, 2009, pp. 129-159. 참조.

왕경」조에서는 각각의 물목들은 대관정을 받는 의식을 통해 理와 융합되어 絶待靈知의 마음과 法身向上的 이치를 지닌 안립물목으로 변화되는데,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의 복장제물해석분제이과설과 함께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을 보여준다.

오불의 지혜와 지혜의 보배, 오지의 싹, 오불의 향, 오불의 약 등의 의미를 지닌 물목들은 아사리, 오방법사, 송주법사에 의해 진행되는 관정의식을 통해 佛身을 성취하게 된다. 간다라 지방에서는 정계에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중국은 生身사상에 기반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형태의 오장육부를 제작하여 상에 안립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불복장은 오불의 불신을 성취한 물목을 후령통과 황초폭자로 싸서 상에 안립하는 형식이다. 즉, 단순한 物을 넘어 事와 理를 모두 지닌 물목을 통해 조각상 내부를 장엄함으로써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佛’로 완성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형식을 지닌 불복장의식이 성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초기에는 탑과 유사한 사리신앙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대일경』, 『금강정경』, 『다라니집경』, 『삼종실지삼부의제』, 『묘길상대교왕경』 등의 밀교 경전의 사상과 형식이 불복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심장을 상징하는 팔엽과 오불을 결합시키는 태장과 금강계가 합일된 양계만다라의 구조가 『조상경』에 도입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불복장의식은 오불의 불신을 갖춘 물목으로 상의 내부를 장엄하고 이를 통해 부처님의 實體에 다가가려 종교적 의례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1. 원전

-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 『大毘盧遮那成佛經疏』
-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 『佛說陀羅尼集經』
- 『妙吉祥平等秘密最上觀門大教王經大教王經』
-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戒秘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
-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秘密陀羅尼法』
-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三界秘密陀羅尼』
- 『宗鏡錄』
- 『東文選』
- 『造像經』
- 『酉陽雜俎』

2. 단행본 · 도록 · 보고서

- 徐閔吉, 『韓國密敎思想史研究』, 불광출판부, 1994
- 松長有慶 著 · 張益 譯, 『밀교경전 성립사론』, 불광출판사, 1993
- 태경스님,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 『1302年 阿彌陀佛腹藏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소장품도록』, 동국대학교박물관, 2006
-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2009
- 『월정사 성보박물관 도록』, 월정사 성보박물관, 2002

-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誓願』, 해인사 성보박물관, 2008
- 『ガンダーラ美術とバーミヤン遺跡殿』, 静岡縣立美術館, 2008
- 『日本の美術』7, 至文堂, 1973
- 『日本の美術』513, 至文堂, 2009

3. 학술논문

- 김순아, 「성주사 삼천불전지 출토 소조상과 납입품」, 『불교미술』제27호,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5, pp. 83-104
- 김영덕, 「三種悉地法에 관한 연구」, 『密敎學報』10,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9, pp. 33-54
- 남풍현,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 造像記의 吏讀文 考察」, 『新羅文化』第5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8, pp. 20-23
- 동국대학교박물관 편, 「聖住寺三千佛殿址第一次發掘-聖住寺址 第2次調査」, 『佛敎美術』2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4
- 박경원 · 정원경, 「永泰二年銘蠟石製壺」, 『연보』6, 부산시립박물관, 1983, pp. 45-62
- 박준석, 「밀교의 아자관에 대한 연구」, 『密敎學報』第十四輯,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13, pp. 85-108
- 문상련, 「納塔經典의 시대적 變遷考」, 『佛敎學報』6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 pp. 337-368
- 이선용,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美術史學研究』278, 한국미술사학회, 2013, pp. 93-119
- _____, 「우리나라 불복장의 특징」, 『美術史學研究』289, 한국미술사학회, 2016, pp. 125-162
- 이승혜, 「高麗時代 佛腹藏의 形成과 意味」, 『美術史學研究』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71-100

- 이주형, 「李柱亨, 「간다라 佛像과 舍利 奉安」, 『中央 아시아 研究』第9號, 중앙아시아학회, 2009, pp. 129-159
-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31-58
- 홍대한, 「신라와 고려시대 조탑(造塔) 경전의 역할과 기능」, 『史學志』제42집, 단국대학교사학회, 2011. pp. 101-149
- 한정호,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美術史論壇』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pp. 61-88

The Sublimity of the Statue of Buddha,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Bulokjang*

Lee, Seon Yong Senior researcher, the Institute of Traditional Fabric Resto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ulokjang(佛腹藏) is a Buddhist ritual(佛教儀禮) that represents the unique culture of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cultures, and *Josang gyeong*(『造像經』) is at its c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bulokjang* through the ideologies and ritual characteristics that are inherent in *Josang gyeong*.

Josang gyeong is composed mainly of *Zhufo pusa fuzang tan yishi*(『諸佛菩薩腹藏壇儀式』), *Miaojixiang dajiaowang jing*(『妙吉祥大教王經』), and *San xidi tanshi*(『三悉地壇釋』). It contains not only the classification, production method, and definition of the items(物目) that are placed inside the *bulokjang*, but also the entire ritual(儀禮) process.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and definition of each of item changes according to the ritual. The items, Five Wisdoms(五智) that are inherent to the Five Buddha(五佛), and the meaning of incense(香) and medicine(藥) are all connected to the Five Buddha, and through the consecration with water(灌頂儀式), they

become the body of Buddha(佛身). By placing the items constituting the body of Buddha in the statue(像) and making it sacred, the “Buddhist(佛),” to which a religious meaning is given, is completed. This is different from the enshrinement of the halidom(聖物) in Gandhara, which enshrined the sacred remains of the small crystals in usnīsa(頂髻). Furthermore, i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China, in which realistic and practical representations of the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五臟六腑) are placed inside the statue. These characteristics are believed to be completed, as the ideas and forms of the Buddhist scriptures of esoteric Buddhism were introduced in *bulokjang* and *Josang gyeong*. Our country’s *bulokjang* is recognized as a religious ritual act of approaching the truth of Buddha by making the inside of the statue sacred with items that constitute the bodies of the Five Buddhas.

Keywords : Bulokjang, Josang gyeong, five directions, Five Buddha,
Palyeongtong, Huryeongtong